

'국제 청년관광도시, 전북' 만든다

도, 해외관광마케팅 유치 방향 설정... 3~8월 중 아시아태평양 청년 대상 행사 4건 진행

올해 전북도는 해외관광마케팅 유치 방향을 '국제 청년관광도시, 전북'으로 설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년 교류전 및 관광객 유치행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아시아태평양 청년들이 모이는 4건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도요에서 열린 일본여행사 대상 설명회에서 송하진 지사와 한국미이스협회 김응수 회장은 올해를 전북을 국제청년관광도시로 만들어가자고 협의한 후 도 관광총괄과와 한국미이스협회가 지난 1월에 태극을 방문해 국제적 마케팅을 펼쳐, 올 3월과 8월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했다.

첫 국제청년 행사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4박 5일간 열리는 '2017 KT&G아시아대학생 창업교류전'이다. 이 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창업아이템 국제행사로 아시아 각국 학생들이 창업아이템을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10개국, 113명의 해외 학생과 한국대표 17명, 전북지역 청년과 해외청년 서포터즈 20여명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10명을 포함해 총 160명이 전북을 방문, 4박 5일간 머문다.

이 행사는 한국경제신문과 전북도가 공동주최하고, 남원시 및 관련 업체 등이 후원하며 한국MICE 협회가 주관, KT&G가 협찬한다.

두 번째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청년교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요원 위촉식. 지난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쾌적한 혁신도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악취모니터 요원 위촉식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모니터요원(전주 10명, 완주 10명)들이 위촉식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개발계획(UNDP) 등 UN국제기구와 일반유스아카데미(UYA)가 2년 2회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15개국 약 250명의 아태지역의 청년리더들이 전북지역 내 주요관광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UN SDGs)'에 동참해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제안,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및 현지 실사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 2주간 우리지역에 머문다.

이번 행사는 도와 부안군이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민과 지역 청년(대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섬지원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행사가 고군산군도에서 열리며 약 3,000명이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8월에는 작년에 처음 열린 '한중미술문화교류축제'를 '국제미술문화교류축제'로 확대해 중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동남아 등의 태권도 수련인과 학생, 관광객 5,0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열리는

4건의 국제행사에 8,400여명의 외래관광객이 참가할 것으로 약 87억 정도의 소비지출이 예상돼 전북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은 체류시간이 길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관광지 탐방과 체험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아 홍보효과도 좋다"며 "앞으로도 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제2기 청년정책포럼 발대식 개최

전북도는 17일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들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2기 청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전라북도의 꿈을 향한 청년의 열정!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발대식을 가졌다.

제2기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교사, 자영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됐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청년리더의 역할' 특강과 '오늘은 희한하게 청년들의 소중한 이야기에 빠져든다'라는 주제로 청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

으로 진행했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년정책포럼은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교육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생활현장 속 청년문제를 조사, 의견을 취합·전달하게 된다.

또한, 정기적 소통을 위해 전체 회의 2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분과별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포럼 위원에게는 분과별 회의 진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내 타 지자체 청년위원,단체와 교류 등을 지원한다.

송하진 지사는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 주면 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형 청년정책'이 탄생하리라 확신한다"며 "청년정책포럼 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기반 정비 특교세 15억 확보

무주군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반 시설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해 대비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의 숙박시설로 활용 예정인 무주청소년수련원(40실, 2012년 완공) 및 통나무집(10동, 2006년 완공) 리모델링과 6월 23일 2017 무주 WTF 총회 개최지인 무주국민체육센터(2013. 8월 개원) 부대시설 확충 건 등으로, 무주군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기반으로 3월까지 관련 사업계획 수립하고 5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과 통나무

집의 객실벽면 및 바닥의 리모델링을 비롯해 다인용 침대 설치, 헬스장 및 샤워장, 자동문 등의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각종 협회 임원들과 집행위원, 국내·외 보도진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2017 무주 WTF 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무주국민체육센터에 벽면 흡음재를 설치하는 등 건축·전기 음향시설 보완과 방음 및 냉·난방기 시설을 확충하는데 총 사업비 28억원이 투입된다.

황정수 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한결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용도와 대회 품격에 맞게 시설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7대 은희준 회장 취임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지난 17일 전주 트윈호텔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현수 상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희준 연합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7대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은희준(부안, 한국폴리우드)대표는 "연합회가 명실 공히 전국농공단지 주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도 힘 쓸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며 "회원을 위한 가치창출을 하며 회원이 필요로 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임원진과 함께 농공단지가 대외적으로 인식되도록 정부기관은 물론, 임법부 관계자 등을 만나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안재용 기자

새만금유역 하수도시설 해빙기 도·시군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새만금유역 하수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유역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31개소, 공사중인 하수도시설 16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중 10개소를 선정해 20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 건축물의 균열 및 용기, 펌프류, 변전설비, 전기 시설물 등의 가동상태와 공사중인 시설과 주변지역의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축대·옹벽, 절·성토구간 붕괴·붕락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상태 등이다. /안재용 기자

도, 전북형 경제민주화 모델 추진 본격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 가져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가 경제민주화 모델 추진을 본격화 한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송하진 지사와 전문가,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 맞춤형·밀착형 과제를 우선 선정해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의 완성도와 실행력 제고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안)은 실태조사, 세미나, 도민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됐으며, '도민의 살림살이를 키우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를 비전으로 5대 핵심가치, 15개 정책목표, 47개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본계획(안)에는 전북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의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사업으로 '핵심사업', '선도사업', '민치민사업'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전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상징성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주요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며, 도민제안공모, 포럼·교육 등을 통해 도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등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도 힘 쓸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